

## 담뱃갑 경고그림이 금연태도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처양식(coping styles)의 조절 효과의 남녀 차이\*

전 승 우

박 준 우<sup>†</sup>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본 연구는 성별과 대처양식이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 30대 남자 194명, 여자 178명, 총 372명의 흡연자가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고문구 또는 후두암 사진이 부착된 담뱃갑 사진에 노출되었다. 실험 결과,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원 대처 모두에서 성별  $\times$  경고라벨  $\times$  대처양식 사용 정도 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문제중심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경고그림이 금연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었으나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는 경고그림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경고그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에 따른 경고그림 효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성별과 대처양식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데, 남녀가 선호하는 대처양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고그림에서 야기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경고그림 효과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원 대처 모두에서 금연태도가 성별  $\times$  경고라벨  $\times$  대처양식 간의 삼원상호작용과 금연의도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도 입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담뱃갑 경고그림, 금연태도, 금연의도, 대처양식, 성별

\* 본 연구는 2016학년도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sup>†</sup> 교신저자 : 박준우,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joonoo93@naver.com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2013년 기준으로 23.2%로 높은 편이다(국립암센터, 2016). 특히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대한민국 정부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5년 담뭍값을 2,000원 인상했고 금연구역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책은 문구나 그림을 통해 담뭍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다. 1988년 담뭍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의 표시가 의무화된 이래 문구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경고의 강도도 강화되었다. 나아가 2016년 12월 23일부터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다. 현재 70개 이상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담뭍갑 경고그림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이것이 국민건강과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연합뉴스, 2016).

국내의 소셜 마케터들은 담뭍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포기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담뭍갑 경고그림 역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하나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마케팅,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소비자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Andrews, Netemeyer, Kees, & Burton, 2014; Hammond, 2011; Noar 등, 2016). 이 연구들은 담뭍갑 경고그림이 경고문구보다 흡연자들의 금연의도 상승(Kees, Burton, Andrew, & Kozup, 2010), 금연행동(Hammond, 2003),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형성(Andrews 등, 2014), 비흡연자의 흡연예방(Netemeyer, Burton, Andrews, & Kees, 2016)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국내에선 담뭍갑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다(예외: 신윤정, 김부용, & 현용진, 2007; 최유진, 2014). 이것은 아마도 국내에서 담뭍갑 그림경고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그림경고가 흡연자의 금연 유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그림경고가 흡연자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메시지 폼하(message derogation: Freeman, Hennessy, & Marzullo, 2001; Schütz & Ferguson, 2015), 심리적 저항(psychological reactance: Erceg-Hurn & Steed, 2011; LaVoie, Quick, Riles, & Lambert, 2015), 흡연욕구 향상(Sabbane, Lowrey, & Chebat, 2009; Süßenbach, Niemeier, & Glock, 2013)과 같은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 담뭍갑에 그림경고를 부착하는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뉴시스, 2016).

하지만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한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 즉 어느 조건에서 경고그림이 효과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지를 밝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흡연여부(Netemeyer 등, 2016), 교육수준(Hammond 등, 2012), 흡연량(Dijkstra & Bos, 2015)과 같은 변수들을 제외하고, 성격차이와 같은 개인적 변수들이 담뭍갑 그림경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예외, Dijkstra & Bos, 2015). 다만, 몇몇 공포기반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특성 불안(trait anxiety; Witte & Morrison, 2000), 인지적 회피성향(Nestler & Egloff, 2010), 불확실성 회피성향(De Meulenaer, De Pelsmacker, & Dens, 2015), 인지욕구(Ruiter, Verplanken, Cremer, & Kok, 2000), 건강저항심(health resistance; Dickinson-Delaporte & Holmes,

2011)과 같은 개인적 변수들이 메시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변수인 대처양식(coping styles)이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에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대처양식의 조절효과에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경고에 노출된 흡연자는 공포, 혐오감, 슬픔,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Cameron, Pepper, & Brewer, 2013; Emery 등, 2014; Kees 등, 2010; Netemeyer 등, 2016). Kees 등(2010)은 그림경고로 야기된 공포감이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흡연자에게 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다. 대처양식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깊는데(Connor-Smith & Flachsbart, 2007), 이러한 기질적인 대처양식은 흡연자가 경고그림에 노출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영향을 미쳐 그림경고 효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남녀 사이에 주로 활용하는 대처양식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Tamres, Janicki, & Helgeson, 2002)을 바탕으로 대처양식이 그림경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남녀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음 장에서 기존의 그림경고 효과와 성별에 따른 대처양식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 담뱃갑 그림경고 효과

담뱃갑 경고그림(Graphic Pictorial Health Warning)은 흡연의 위험성을 이미지의 형태로

전달하기 위한 경고 표시의 일종이며 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정적 결과를 묘사한 이미지와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 문구가 결합된 형태로 제시된다.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는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경고그림에 관한 선행연구는 경고그림이 금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과 경고그림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는 매커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실험 연구와 추적 조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경고그림은 경고문구에 비해 금연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ammond 등(2003)의 종단연구는 캐나다에서 경고그림 도입 이후 흡연량의 감소나 금연 시도, 금연 성공 등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였다. 네덜란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Willemsen(2005)의 연구에서도 경고그림이 담배 구매를 감소시키고 금연 동기를 불러일으켰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경고그림은 경고문자보다 훨씬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인식되는데, 이러한 시각적인 생생함이 경고그림 효과의 토대가 된다(Kees 등, 2010, Andrew, Netemeyer, Kees, & Burton, 2014).

경고그림은 이해하기 쉽고 흡연의 유해성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며(Bansal-Travers, Hammond, Smith, & Cummings, 2011; Cameron 등, 2015; Hammond, Fong, McNeill, Borland, and Cummings, 2006; Vardavas, Connolly, Karamanolis, & Kafatos, 2009; White, Webster, & Wakefield, 2008), 흡연의 위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Hammond 등, 2007; White 등, 2008),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고(Andrew

등, 2010), 경고 메시지를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정확하게 회상하게 한다(Strasser, Tang, Romer, Jepson, & Cappella, 2012). Noar 등(2015)은 경고그림에 관한 37개 연구를 메타분석하여 경고그림이 경고문구에 비해 주의를 더 잘 끌며, 더 강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담뱃갑 및 흡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금연 의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Nonnemaker 등(2010), Monárrez-Espino 등(2014)의 연구를 비롯한 일부 연구에서는 경고그림이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으며, 경고그림이 흡연자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메시지를 회피하거나 폄훼(message derogation; Freeman 등, 2001; Schütz & Ferguson, 2015)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흡연자의 심리적 저항(psychological reactance; Erceg-Hurn & Steed, 2011; LaVoie 등, 2015)을 야기하기도 하고, 흡연욕구 향상(Sabbane 등, 2009; Stüssenbach 등, 2013)과 같은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경고그림 연구들은 경고그림 효과의 구체적 매커니즘과 경계조건을 밝히는 데 노력을 집중한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경고그림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이 경고그림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Kees 등(2010)은 경고그림의 효과가 회상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의해 매개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Netemeyer 등(2015)은 경고그림 효과에 대한 공포, 혐오, 죄책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여 주로 공포에 의해 매개됨을 보였다. 또한 Emery 등(2014)은 경고그림의 효과와 경고그림에 결합된 경고문구의 효과를 분리하여, 경고그림은 정서적 요인인 걱정(worry)을 통해 매개되며, 인지적 요인인 신뢰

(believability)는 경고그림에 결합된 경고문구의 효과를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Evans 등(2015)은 경고그림 유무와 경고문구 유무가 정서 및 인지적 요소들에 미치는 다양한 매개 효과를 조사하여 경고그림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가 그 자체로서 정보의 역할(affect heuristic)을 하는 매개 경로와 부정적 정서가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에 대해 조사하게 만드는 스포트라이트로서의 역할(affect as spotlight)을 하는 매개 경로가 모두 유의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이 경고그림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를 중심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한 반면, Magnan과 Cameron(2015)의 연구에서는 경고그림이 새로운 지식을 갖게 하고 그 결과 걱정을 불러일으켜 흡연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성별이나 성격차이와 같은 개인차이가 경고그림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Davis와 Burton(2016)은 경고그림 연구에서 개인차 변수의 대해 주목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예외적으로, Hammond 등(2012)은 멕시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여성, 고연령, 저학력의 사람들에게 그림경고가 금연의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Dijkstra와 Bos(2015)는 개인의 탈피 믿음(disengagement belief)의 정도 차이가 경고그림 효과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탈피 믿음은 일종의 인지적 방어기제로 건강에 해로운 행동에 대한 변명(예: 내가 장수하는 흡연자를 알고 있다)을 제공하여 공포소구 메시지가 주는 위협을 인식하는 것을 차단해준다. 이 연구는 경고그림이 금연의도를 높이는 효과가 탈피 믿음이 낮

은 흡연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또한 경고그림 효과가 심한 흡연자에게만 나타난다는 것도 입증하였다.

공포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여러 연구들이 개인적 변수가 공포소구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특성 불안(trait anxiety; Witte & Morrison, 2000), 인지적 회피성향(Nestler & Egloff, 2010), 불확실성 회피성향(De Meulenaer 등, 2015), 인지욕구(Ruiter 등, 2000)에서의 개인 차이가 공포소구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Meulenaer 등(2015)은 확장된 병행과정 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Witte, 1992)에서의 주요 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인지된 위협이 개인변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검토하였는데, 낮은 불안감과 불확실성 그룹에서 자기효능감의 메시지 설득효과가 더 컸다. 반면, 인지된 위협은 낮은 불안감 그룹에서 메시지 수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개인의 대처양식이 경고그림 효과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성별과 대처양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성별과 대처양식

대처는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이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어떤 자극이 개인에게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평가(primary appraisal)이고, 둘째는 그 위협에 어떻게 반응할지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과정인 이차평가(secondary appraisal)이다. 세 번째는 대처(coping)로 이 반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듯

대처는 “위협에 대응한 (개인의)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노력”(Tamres 등, 2002, p.2)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동하는 성격”(Bolger, 1990, p.525; Connor-Smith & Flachsbart, 2007에서 재인용)으로 일반적인 개인의 성향으로 규정되기도 한다(Carver 등, 1989). 반면 Folkman과 Lazarus(1985), Folkman, Lazarus, Gruen과 DeLongis(1986)과 같은 연구들은 개인의 대처 행위를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person-environment transaction)으로 규정하면서 특정 상황(예: 시험, 수술)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대처 행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여러 연구자들(Carver 등, 1989; McCrae & Costa, 1986)은 대처의 성향적인 측면과 상황적인 측면은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보완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즉, 개인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대처양식은 존재하지만, 상황(예: 스트레스 상황의 중요성이나 해결 가능성)에 따라 사용하는 대처양식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처 연구들은 100가지 이상의 대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400가지 이상의 대처양식과 방법을 제시하였다(Skinner, Edge, Altman, & Sherwood, 2003). 이들 대처양식들은 효과에 따라 적합한 대처(adaptive coping)와 부적합한 대처(maladaptive coping)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적합한 대처로는 능동적 대처(active coping), 계획세우기(planning), 받아들임(acceptance), 도구적(instrumental) 또는 감정적(emotional)인 사회적 지원 구하기(social support seeking) 등을 들 수 있으며, 부적합한 대처로는 부정(denial), 정신적(mental) 또는 행동적 탈피(behavioral disengagement), 감정 분출(venting), 회피(avoidance)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적합/부적합 여부와 무관하게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

한 직접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와 연관된 정서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능동적 대처나 계획세우기 등은 전자로, 받아들임이나 감정분출 등은 후자로 분류된다(Folkman & Lazarus, 1980, 1985). 한편 이장호와 김정희(1988)는 대처양식을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고 다시 적극적 대처를 문제집중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로, 소극적 대처를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교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대처양식이나 전략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Tamres 등, 2002; Rosenfield & Mouzon, 2013). 남성의 경우 능동적 대처나 계획세우기 같은 직접적인 문제중심 대처(Matud, 2004; Zwicker & DeLongis, 2010)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부정 또는 회피(Stone & Neale, 1984; Thoits, 1995)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보다는 사회적인 지원을 구하는 대처(Carver 등, 1989; Copeland & Hess, 1995)나 정서중심 대처(Folkman & Lazarus, 1980; Ptacek, Smith, & Dodge, 1994)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이 여성보다 문제중심 대처를 선호하는 이유를 남녀의 사회화 과정에서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남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다움(masculinity)의 경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여성스러움(femininity)의 경우, 간접적인 정서조절이 강조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Washburn-Ormachea, Hillman, & Sawilowsky, 2004).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차이는 존재한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일 또는 직장 관련 환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로 인해 남

성들이 문제중심 대처 사용에 익숙하다는 주장이 있다(Matud, 2004; Tamres 등, 2002). 최근 들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했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 연구도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직장에서 의사결과와 관련된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정민정 & 탁진국, 2004). 따라서 남성들은 문제중심 대처에 더 익숙하다고 볼 수 있다(Tamres 등, 2002).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을 구하는 대처를 남성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권장된다(Derlega & Chaikin, 1976). 반면 남성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유약함을 나타낼 수 있기에 권장되지 않는다. Collins와 Miller(1994)의 메타분석은, 여성의 경우 자신의 어려움을 타인에게 나타내는 행동이 개인 호감도를 높이지만, 남성의 경우 오히려 호감도를 낮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Eagly & Crowley, 1986).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에 더 익숙하게 만든다.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고그림은 흡연자에게 공포감 또는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킨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흡연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다(Glock & Kneer, 2009; Stussenbach 등, 2013). 이런 스트레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흡연자의 경우, 회피나 부정과 같은 방어기제를 작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고그림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Dickinson-Delaporte와 Holmes(2011)에 따르면, 이

성적 문제해결과 같은 적합한 대처가 회피, 숙명주의, 낙관주의와 같은 부적합한 대처보다 금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더 높였다. 따라서 적합한 대처양식을 가진 흡연자들에게 담뱃갑 경고그림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Varescon, Leignel, Poulain과 Gerard(2011)은 스트레스를 임신부 흡연의 주요 이유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임신한 임신부가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구하는 것과 같은 적합한 대처를 사용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대처를 사용한 임신부보다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관심은 대표적인 적극적 대처양식인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원 대처가 그림경고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가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두 대처 양식 선호에는 남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두 대처양식의 경고그림에 대한 조절효과에도 남녀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남녀 각각 선호하는 대처양식을 사용할 경우, 경고그림 효과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성별, 담뱃갑 경고방식,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 사이에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남성(vs. 여성)의 경우, 문제중심 대처양식을 사용할수록 담뱃갑 경고그림(vs. 경고문자)이 금연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성별, 담뱃갑 경고방식, 사회적 지원 구하기 사용 정도 사이에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여성(vs. 남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을 구하는 대처양식을 사용할수록 담뱃갑 경고그림(vs. 경고문자)이 금연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금연태도의 매개효과

태도는 행위의도를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변수이다(Fishbein & Ajzen, 1974). 심리학에서 태도가 행위의도를 매개하여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은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Ajzen, 1991; Fishbein & Ajzen, 1975). 구체적으로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Ajzen & Fishbein, 1980)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은 행위에 대한 태도가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의도는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 두 모델은 건강행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론이며(Noar & Zimmerman, 2005), 건강행동을 예측하고 건강개입 프로그램(health intervention program)의 성공여부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Hardeman 등, 2002). 최근에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Noar 등, 2016)에서도 금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금연의도나 흡연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도 금연태도가 경고라벨, 성별, 대처양식 사이의 상호작용과 금연의도를 매개할 것이라 예상된다.

**가설 3:** 금연태도는 성별,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 담뱃갑 경고라벨 사이의 상호작용과 금연의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금연태도는 성별,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 담뱃갑 경고라벨 사이의 상호작용과 금연의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 연구방법: 실험

###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3월, 마케팅 조사회사 온라인 패널에 소속된 20-30대 372명의 흡연자(남성: 194명, 여성: 178명)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종료 후, 각 연구참여자에게는 마케팅 조사회사에 의해 현금 3천원이 답례로 지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흡연규제 조사(Thompson 등, 2006)의 방법과 동일하게, 18세 이상, 평생 동안 피운 담배가 100개비 이상, 그리고 지난달 동안 1개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을 흡연자로 규정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상의 학력(고졸 또는 그 이하: 15.1%; 대학재학 이상 = 84.9%)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담배를 피운 햇수는 9.2년인데 남성( $M = 9.92, SD = 5.23$ )이 여성( $M = 8.42, SD = 4.76$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오래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F(1,370) = 8.27, p = .004$ . 한 달 중 흡연일수에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모두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전체: 60.8%, 남자: 59.8%, 여자: 61.8%)이 가장 많았다. 하루의 담배 피우는 개비 수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 남성은 하루에 11-20개 사이가 58.8%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10개비 이하가 여성 전체의 56.7%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이후 가설 검증과정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담배를 피운 햇수와 하루 흡연량은 통제하였다.

### 자극물과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

산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레종(Raison)을 실험을 위한 담배 브랜드로 사용하였다. 이 실험이 실시된 2016년 3월은 한국에서 아직 그림 경고가 실시되기 전이다. 따라서 실험을 위한 경고그림은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의 건강 경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되었다. 경고그림 자극물로는 담배로 인해 후두암에 걸린 심각한 상태의 목을 나타낸 그림을 사용하였다. 이 자극물에는 이 그림과 함께 “경고: 흡연은 후두암, 식도암 등을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의 경고문구가 포함되었다. 경고문구 자극물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림 1에서 이 실험에서 사용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정리하였다.

이 실험은 온라인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극물에 노출되기 전, 모든 응답자들은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와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 흡연경력, 흡연량, 인구통계적인 문항에 답했다. 이어서 실험 참여자들은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자에 무선(random) 배치되었으며, 컴퓨터 화면을 통해 약 30초 가량 자극물에 노출되었다. 이 실험은 응답자들이 노출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응답자들은 자극물을 자세히 살펴본 후, 경고의 시각적인 정도, 담배 브랜드 태도, 패키지 친숙도, 금연태도, 금연의도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였다.

### 측정도구

경고 자극물에 대한 조작점검을 위해 선행 연구(Kees 등 2010; Netemeyer 등, 2016)처럼 경고의 시각적인 정도(graphicness)를 4개 항목(생





경고문구



경고그림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담뱃갑 경고문자 및 경고그림 자극물

생하다, 시각적이다, 강력하다, 강렬하다;  $\alpha = .97$ )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의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와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rief COPE(Carver, 1997)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본래의 COPE(Carver 등, 1989)의 간편 버전으로 14개 대처양식을 측정하는데, 각 대처양식마다 각 2항목씩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제중심 대처 양식은 능동적 대처와 계획세우기의 4개 항목( $\alpha = .74$ )으로, 사회적 지원 대처 양식은 도구적 그리고 정서적 지원 대처의 4개 항목( $\alpha = .80$ )으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부록 1에 정리하였다. 1일 흡연량은 명목척도(1 = 10개비 이하, 2 = 11-20개비, 3

= 21-30개비, 4 = 31개비 이상)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흡연 햇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비율척도(규칙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가 사용되었다.

금연태도는 2개 항목(호의적이다, 긍정적이다;  $\alpha = .93$ )으로 측정하였다. 금연의도는 선행연구(Harris, Mayle, Mabbott, & Napper, 2007; Lipkus & Shepperd, 2009)에서 사용된 금연계획(3개 항목,  $\alpha = .89$ )을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자극물로 사용된 레종 브랜드에 대한 태도도 선행연구(Holbrook & Batra, 1987)의 측정도구를 차용하여 4개 항목(긍정적이다, 호의적이다, 가치있다, 좋은 품질이다;  $\alpha = .95$ )로 측정하였다. 패키지 친숙도는 제시된 담배 패키지에

대한 친숙 정도를 묻는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가설검정 과정에서 통제하였다.

성별, 경고라벨, 대처양식의 삼원 상호작용: 가설 1, 2

## 결 과

### 조작 및 데이터 점검

응답자들은 의도한대로 경고문자( $M = 3.19$ ,  $SD = 1.31$ )보다 경고그림( $M = 6.01$ ,  $SD = 1.05$ )을 훨씬 더 시각적으로 인식하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370) = 524.03$ ,  $p < .001$ . 하지만 성별에 따른 시각적 인식 정도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sup>1)</sup>. 문자 경고와 그림경고 간의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의 차이(경고문자:  $M = 2.90$ ,  $SD = .56$ , 경고그림:  $M = 2.85$ ,  $SD = .56$ ,  $F(1,370) = .77$ ,  $p = .38$ )와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의 차이(경고문자:  $M = 2.58$ ,  $SD = .63$ , 경고그림:  $M = 2.70$ ,  $SD = .64$ ,  $F(1,370) = 2.71$ ,  $p = .1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경고방식에 따른 브랜드 태도(경고문자:  $M = 4.12$ ,  $SD = 1.22$ , 경고그림:  $M = 3.80$ ,  $SD = 1.26$ ,  $F(1,370) = 6.16$ ,  $p = .014$ )와 패키지 친숙도(경고문자:  $M = 4.40$ ,  $SD = 1.43$ , 경고그림:  $M = 3.76$ ,  $SD = 1.55$ ,  $F(1,370) = 17.58$ ,  $p < .001$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반면 이 두 변수에 대한 남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sup>2)</sup>. 이 두 변수는

### 문제중심 대처

이 연구에서는 대처양식 사용 정도를 등간 척도로 측정하였으므로 Aiken과 West(1991)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 및 단순기울기 분석 접근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선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인 경고라벨, 조절변수인 성별과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 공변인인 브랜드태도, 패키지 친숙도, 1일 흡연량, 흡연 햇수를 1차 단계에 입력하였다. 세 개의 이원상호작용인 경고라벨  $\times$  성별, 경고라벨  $\times$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 성별  $\times$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를 2차 단계에 입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고라벨  $\times$  성별  $\times$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의 삼원상호작용을 3차 단계에 입력하였다. 분석결과, 경고라벨( $\beta = .11$ ,  $t(364) = 2.04$ ,  $p = .042$ )과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 $\beta = .16$ ,  $t(364) = 3.15$ ,  $p = .001$ )의 금연태도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성별( $\beta = -.016$ ,  $t(364) = -2.95$ ,  $p = .79$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원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경고라벨  $\times$  문제중심 대처의 사용 정도( $\beta = .54$ ,  $t(363) = 1.78$ ,  $p = .08$ )의 경우, 미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경고라벨  $\times$  성별( $\beta = .18$ ,  $t(363) = .82$ ,  $p = .41$ )과 성별  $\times$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 $\beta = -.30$ ,  $t(363) = -.95$ ,  $p = .34$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경고라벨  $\times$  성별  $\times$  성:  $M = 4.05$ ,  $SD = 1.49$ ,  $F(1,370) = .09$ ,  $p = .77$ )

1) 인지된 시각화(남성:  $M = 4.66$ ,  $SD = 1.76$ , 여성:  $M = 4.58$ ,  $SD = 1.94$ ,  $F(1,370) = .151$ ,  $p = .70$ )  
2) 브랜드태도 (남성:  $M = 3.92$ ,  $SD = 1.34$ , 여성:  $M = 3.99$ ,  $SD = 1.15$ ,  $F(1,370) = .27$ ,  $p = .60$ ); 패키지 친숙도 (남성:  $M = 4.10$ ,  $SD = 1.55$ , 여

표 1 성별, 경고라벨,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 간의 삼원상호작용과 금연태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Predictors          | Step 1   |         |         |        | Step 2   |         |         |        | Step 3    |          |         |        |
|---------------------|----------|---------|---------|--------|----------|---------|---------|--------|-----------|----------|---------|--------|
|                     | B        | SE      | $\beta$ | $t$    | B        | SE      | $\beta$ | $t$    | B         | SE       | $\beta$ | $t$    |
| Constants           | 4.513*** | .570    |         | 7.917  | 5.971*** | .167    |         | 3.587  | 12.178*** | 3.518    |         | 3.462  |
| 브랜드태도(통제변수)         | -.031    | .057    | -.029   | -.541  | -.028    | .057    | -.026   | -.486  | -.026     | .057     | -.024   | -.463  |
| 패키지 친숙도(통제변수)       | .005     | .048    | .006    | .104   | .005     | .048    | .005    | .095   | .004      | .048     | .005    | .093   |
| 흡연횟수(통제변수)          | -.002    | .014    | -.009   | -.167  | -.001    | .014    | .002    | -.041  | .001      | .014     | .003    | .059   |
| 1일 흡연량(통제변수)        | -.384**  | .115    | -.177   | -3.298 | -.406**  | .117    | -.187   | -3.480 | -.403**   | .116     | -.186   | -3.464 |
| 경고라벨                | .292*    | .143    | .108    | 2.040  | -1.300   | .814    | -.481   | -1.597 | -5.433*   | 2.220    | -2.009  | -2.448 |
| 성별                  | -.042    | .142    | -.016   | -.295  | .279     | .849    | .103    | .328   | -4.007*   | 2.303    | -1.481  | -1.740 |
|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       | .388**   | .123    | .161    | 3.149  | .066     | .516    | .028    | .129   | -2.095*   | 1.197    | -.868   | -1.751 |
| 경고라벨 × 성별           |          |         |         |        | .227     | .275    | .184    | .823   | 3.051*    | 1.438    | 2.481   | 2.121  |
| 경고라벨 × 문제중심 대처      |          |         |         |        | .438*    | .246    | .538    | 1.781  | 1.876*    | .760     | 2.303   | 2.470  |
| 성별 × 문제중심 대처        |          |         |         |        | -.234    | .247    | -.296   | -.948  | 1.251     | .782     | 1.578   | 1.599  |
| 경고라벨 × 성별 × 문제중심 대처 |          |         |         |        |          |         |         |        | -.981*    | .490     | -2.526  | -2.000 |
| F total             |          | 3.655** |         |        |          | 3.041** |         |        |           | 3.152*** |         |        |
| R <sup>2</sup>      |          | .066    |         |        |          | .078    |         |        |           | .088     |         |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의 삼원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53, t(360) = -2.00, p = .046$ . 표 1에 이 위계

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2에 정리한 단순기울기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 문제중심 대처를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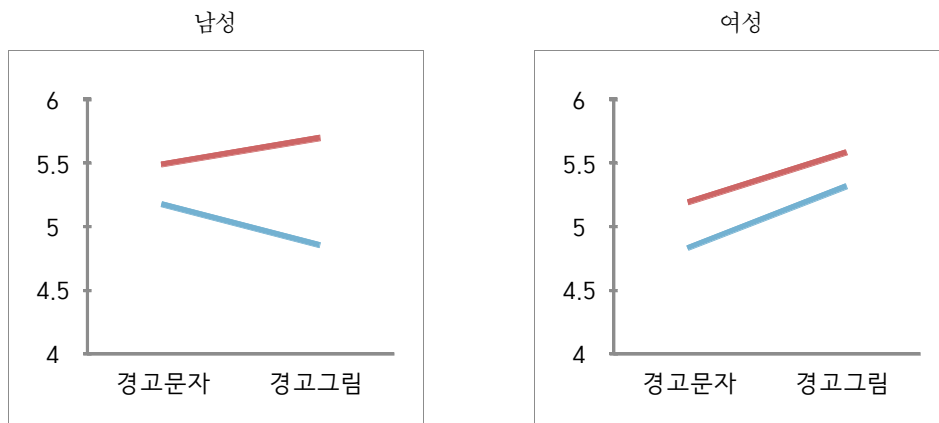


그림 2.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에 대한 단순기울기 분석

많이 사용하는(표준편차+1) 경우에만 경고그림의 금연태도에 대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70, t(360) = 2.52, p = .012$ . 여성의 경우,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가 경고그림 효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의 통제변수 효과를 제외하여도 결과의 통계적 유의함에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 사회적 지원 대처

사회적 지원 대처의 위계적 회귀분석도 문제중심 대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금연태도에 대해 경고라벨의 주효과는 미약하게 유의하였으며( $\beta = .10, t(364) =$

$1.81, p = .07$ ), 경고라벨  $\times$  성별  $\times$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의 삼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2.53, t(360) = 2.05, p = .041$ . 나머지 변수의 주효과와 이원상호작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에 사회적 지원 대처를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3에 정리한 단순 기울기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의 차이에 따른 경고그림의 효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 대처를 사용할수록 금연태도에 대한 경고그림의 효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71, t(360) = 2.81, p = .005$ . 따라서 가설 2도 지지되었

표 2. 성별, 경고라벨,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 간의 삼원상호작용과 금연태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Predictors                          | Step 1            |                    |         |        | Step 2   |                    |         |        | Step 3              |        |         |        |
|-------------------------------------|-------------------|--------------------|---------|--------|----------|--------------------|---------|--------|---------------------|--------|---------|--------|
|                                     | B                 | SE                 | $\beta$ | t      | B        | SE                 | $\beta$ | t      | B                   | SE     | $\beta$ | t      |
| Constants                           | 5.342***          | .540               |         | 9.894  | 7.356*** | 1.496              |         | 4.918  | 1.485               | 3.226  |         | .460   |
| 브랜드태도(통제변수)                         | -.031             | .058               | -.028   | -.527  | -.028    | .058               | -.026   | -.473  | -.032               | .058   | -.030   | -.559  |
| 패키지 친숙도(통제변수)                       | .017              | .048               | .019    | .355   | .016     | .048               | .018    | .335   | .019                | .048   | .021    | .387   |
| 흡연횟수(통제변수)                          | .002              | .014               | .007    | .133   | .003     | .014               | .012    | .220   | .002                | .014   | .006    | .117   |
| 1일 흡연량(통제변수)                        | -.381**           | .118               | -.179   | -3.231 | -.401**  | .119               | -.185   | -3.373 | -.379**             | .119   | -.175   | -3.197 |
| 경고라벨                                | .263 <sup>+</sup> | .145               | .097    | 1.813  | -.682    | .679               | -.252   | -1.004 | 3.187               | 2.004  | 1.197   | 1.591  |
| 성별                                  | -.037             | .146               | -.014   | -.252  | -.710    | .724               | -.262   | -.980  | 2.986               | 1.940  | 1.103   | 1.539  |
|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                     | .086              | .112               | .041    | .772   | -.497    | .518               | -.234   | -.959  | 1.773               | 1.221  | .883    | 1.452  |
| 경고라벨 $\times$ 성별                    |                   |                    |         |        | .206     | .285               | .168    | .725   | -2.246 <sup>+</sup> | 1.228  | -1.828  | -1.828 |
| 경고라벨 $\times$ 사회적 지원 대처             |                   |                    |         |        | .242     | .224               | .309    | 1.079  | -1.251              | .761   | -1.599  | -1.644 |
| 성별 $\times$ 사회적 지원 대처               |                   |                    |         |        | .134     | .228               | .180    | .585   | -1.282 <sup>+</sup> | .726   | -1.726  | -1.765 |
| 경고라벨 $\times$ 성별 $\times$ 사회적 지원 대처 |                   |                    |         |        |          |                    |         |        | .934*               | .455   | 2.532   | 2.052  |
| F total                             |                   | 2.268 <sup>+</sup> |         |        |          | 1.824 <sup>+</sup> |         |        |                     | 2.056* |         |        |
| R <sup>2</sup>                      |                   | .042               |         |        |          | .048               |         |        |                     | .059   |         |        |

<sup>+</sup>p < .10,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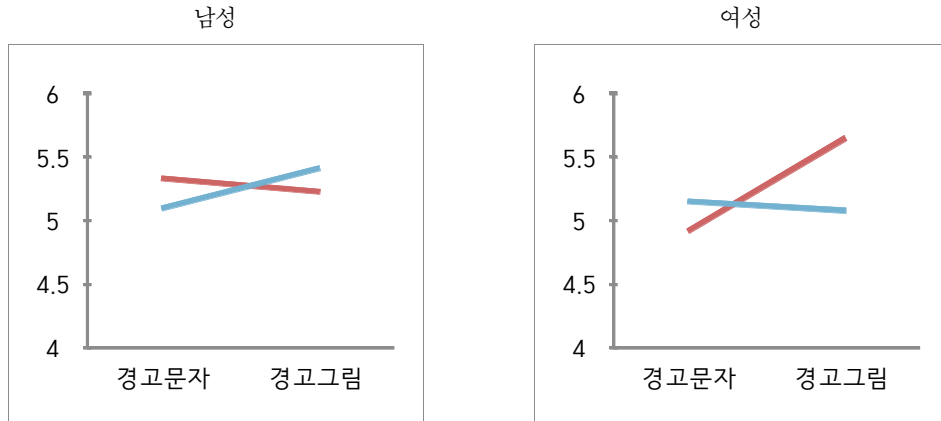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에 대한 단순기울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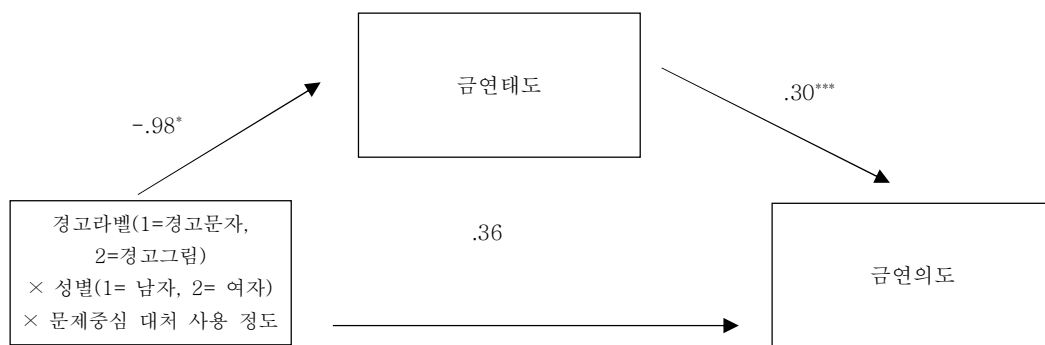
다. 여기서도 통제변수가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태도의 매개효과: 가설 3, 4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Hayes (2013)의 PROCESS 매크로(Model 4)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매크로는 SPSS에서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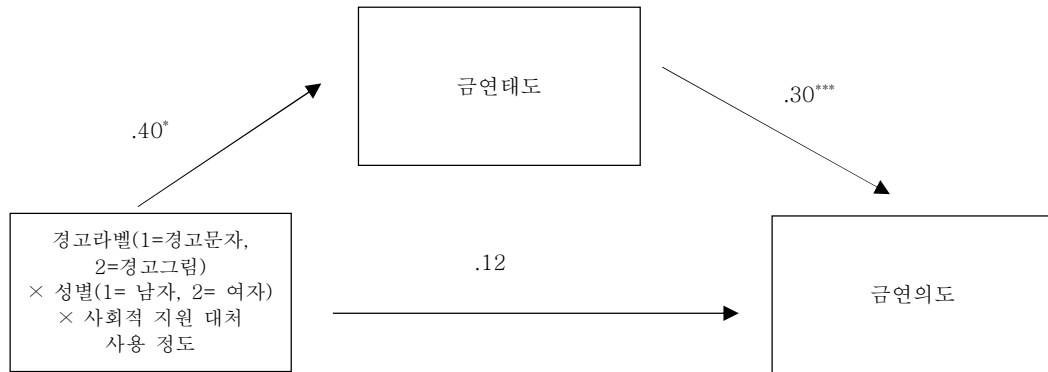
장 프로그램으로 Model 4 분석은 단순매개모형의 효과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가설 3의 금연태도의 경고라벨 × 성별 ×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의 삼원상호작용과 금연의도 사이의 매개분석 결과 간접효과는  $-.291(SD = 1.69)$ 로 95% 신뢰수준에서  $[-.680, -.026]$ 으로 확인되었다. 95% 신뢰수준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경우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설 4의



<sup>†</sup>p < .10, \*p < .05, \*\*p < .01, \*\*\*p < .001

그림 4. 금연태도의 경고라벨, 성별,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간의 삼원상호작용과 금연의도 사이의 매개효과



$^{\dagger}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금연태도의 경고라벨, 성별,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 간의 삼원상호작용과 금연의도 사이의 매개효과

금연태도의 경고라벨  $\times$  성별  $\times$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의 삼원상호작용과 금연의도 사이의 매개 작용에 관한 부스트래핑 테스트 결과, 간접효과는  $.119(SD = .070)$ 로 95% 신뢰 수준에서  $[.014, .283]$ 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가설 3, 4를 지지하였다. 가설 3, 4에 대한 결과는 그림 4, 5에 정리하였다.

### 토론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총 372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자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실시하여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원 대처 모두에서 성별  $\times$  경고라벨  $\times$  대처양식 사용 정도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남성의 경우 문제중심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경고그림이 금연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었으나 사회적 지원 대처 사용 정도는 경고그림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사회

적 지원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경고그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제중심 대처 사용 정도에 따른 경고그림 효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과 별도로 문제중심 대처에는 경고그림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사회적 지원 대처에서는 경고그림의 주효과의 통계적인 유의함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태도에 대한 성별과 대처양식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금연태도는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 지원 대처 모두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times$  경고라벨  $\times$  대처양식 사용 정도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는 금연태도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금연의도를 상승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담뱃갑 경고그림 연구 분야에 여러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고그림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담뱃갑 경고그림 연구는 흡연자의 금연의도와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에 대체로 긍

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심리적 반발이나 흡연욕구 상승과 같은 부메랑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려준다. 지금까지 경고그림 연구는 이러한 효과의 경계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정서적, 인지적 매개변수의 역할을 주목하였다. 개인의 특성 역시 경고그림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서 개인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Davis & Burton, 2016). 더욱이 지금까지 다루어진 개인 변수들도 성격이나 성향에 대한 변수보다는 흡연여부, 청소년 또는 성인, 흡연량, 국적과 같은 변수들이다. 지금까지 탈피민음(Dijkstra & Bos, 2015)과 건강저항(Dickinson-Delaporte & Holmes, 2011) 정도가 경고그림이나 금연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다른 대처양식, 성별, 경고라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이 연구 분야를 보다 풍성하게 만든다.

건강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 정보 수용자가 정보에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가정이다(van't Riet & Ruiter, 2013). 회피, 부정, 억압, 인지적 재평가 등이 대표적인 방어적인 반응이다. van't Riet와 Ruiter(2013)에 따르면 인지적 재평가를 제외한 방어적인 반응들은 부적합한 반응(maladaptive reactions)으로 메시지의 설득효과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런 방어적인 반응, 특히 적합 또는 부적합한 반응과 개인적인 특성을 연결시킨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건강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개인의 대처양식이 방어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서 남녀에 따라 서로 다른 대처양식이 건강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처양식이 건강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대처양식이 메시지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정적 정서를 잘 대처할 수 있다면 부적합한 방어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메시지가 원하는 행동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의 경우, 흡연자가 이것에 노출되면 공포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흡연자가 이런 부정적 정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이 있다면 담뱃갑 경고그림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건강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정보 수용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 대처양식, 부정적 정서 조절, 그리고 메시지 설득효과와의 관계를 연구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기존 공포기반 커뮤니케이션 이론들(확장된 병행처리 모델(Witte, 1992); 보호동기이론(Rogers, 1983) 등)에 따르면, 공포기반 메시지가 제시하는 위협의 개인관련성과 위협의 심각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행위에 대한 효능감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방어기제를 작동시키지 않고 제시된 행위에 따른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대처양식이 위협 인식과 자기효능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적합한 대처양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공포소구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위협을 왜곡 없이 인식하고 자기효능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위협 인식과 자기효능감 판단과의 관계도 연구해 볼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원 대처에 국한하

여 대처양식의 남녀 차이를 측정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대처양식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처럼 일반적인 대처양식을 측정할 수 있지만 경고그림 노출과 같이 어느 특정 상황에 한정된 개인의 대처전략을 측정할 수도 있다. 다양한 대처양식과 경고그림 효과와 관계는 흥미로운 연구주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검토하였지만 대처양식을 흡연여부, 흡연량 등과 연결시켜서도 연구해볼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대처양식을 조작하지 않고 측정을 통해 그 효과 차이를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처양식을 조작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남녀 흡연자에게 경고그림을 제시하고, 이들에게 서로 다른 대처양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연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한다. 그 후 금연태도나 금연의도를 측정하고 남녀차이를 비교한다면 대처양식이 남녀 그림경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협이 신체적 위협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둘 필요성이 있다.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가 느낄 수 있는 위협에는 신체적 위협 외에도 역겨운 냄새, 부정적 시선 등과 같은 사회적 위협도 포함되지만 본 연구의 자극물은 사회적 위협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20-30대의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고령층의 흡연자들이나 비흡연자들까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주제와는 다소 다르지만 스트레스에 방어기제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서는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박영숙·전영민, 2004).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로 실제 인쇄된 담뱃갑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모니터 화면을 통해 담뱃갑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생태학적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담배 유통의 상황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경고그림 도입 전후의 중단 연구 등을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입증한 성별, 대처양식, 경고라벨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실효성 있는 금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실무적 함의가 크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과 흡연자에게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가 선호하는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키워주는 것이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자의 경우, 계획성 있는 금연프로그램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고, 여자의 경우, 감정적인 지원이 금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Fong 등(2006)은 연구자들에게 경고그림 정책이 가격인상 또는 금연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다른 금연정책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과연 남녀가 선호하는 대처양식에 맞게 구성된 금연프로그램이 경고그림효과를 증대시킬지 검토해 볼 만하다.

## 참고문헌

뉴스시스 (2016. 6월 3일자). 흡연자 커뮤니티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등 철회해야,” 뉴스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_view.html?ar\\_id=NISX20160603\\_0014126755&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_view.html?ar_id=NISX20160603_0014126755&cID=10201&pID=10200).



- 박영숙, 전영민 (2004). 연령에 따른 방어기제 성숙도에서의 성차. *대한스트레스학회지*, 12(4), 9-19.
- 신윤정, 김부용, 현용진 (2007). 컨조인트 분석 방법론에 의한 담배 포장의 금연 인식 유발 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27(1), 27-51.
- 연합뉴스 (2016. 3월 31일자). 경고그림 경제효과 3천억~4조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0/0200000000AKR20160330194400017>.
- 이장호, 김정희 (1988).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 25-45.
- 정민정, 탁진국 (2004). 성별과 직급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원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729-741.
- 최유진 (2014). 공포, 혐오감, 분노가 담뱃갑 경고그림 태도, 흡연 태도 및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 연구*, 18(1), 151-187.
- Aiken, L. S. and S.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Y, Prentice Hall.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ndrews, J. C., Netemeyer, R. G., Kees, J., & Burton, S. (2014). How graphic visual health warnings affect young smokers' thoughts of quitt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1(2), 165-183.
- Bansal-Travers, M., Hammond, D., Smith, P., & Cummings, K. M. (2011). The impact of cigarette pack design, descriptors, and warning labels on risk perception in the U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0(6), 674-682.
- Bolger, N. (1990). Coping as a personality proces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25-537.
- Cameron, L. D., Pepper, J. K., & Brewer, N. T. (2015). Responses of young adults to graphic warning labels for cigarette packages. *Tobacco Control*, 24(e1), e14-e22.
- Carver, C. S. (1997).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s too long: Consider the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92-100.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 Collins, N. L., & Miller, L. C. (1994). Self-disclosure and lik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57-475.
- Connor-Smith, J. K., & Flachsbart, C. (2007).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cop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6), 1080-1107.
- Copeland, E. P., & Hess, R. S. (1995). Differences in young adolescents' coping strategies based on gender and ethnicit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2), 203-219.
- Davis, C., & Burton, S. (2016). Understanding graphic pictorial warnings in advertis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Advertising*, 45(1), 33-42.
- Derlega, V. J., & Chaikin, A. L. (1976). Norms

- affecting self-disclosure in men and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3), 376-380.
- De Meulenaer, S., De Pelsmacker, P., & Dens, N. (2015). Have no fear: How individuals differing in uncertainty avoidance, anxiety, and chance belief process health risk messages. *Journal of Advertising*, 44(2), 114-125.
- Dickinson-Delaporte, S. J., & Holmes, M. D. (2011). Threat appeal communications: The interplay between health resistance and cognitive appraisal processes. *Journal of Marketing Communications*, 17(02), 107-125.
- Dijkstra, A., & Bos, C. (2015). The effects of repeated exposure to graphic fear appeals on cigarette packages: A field experiment.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9(1), 82-90.
- Eagly, A. H., & Crowley, M. (1986). Gender and hel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social psycholog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0(3), 283-308.
- Emery, L. F., Romer, D., Sheerin, K. M., Jamieson, K. H., & Peters, E. (2014). Affective and cognitive mediators of the impact of cigarette warning labels. *Nicotine & Tobacco Research*, 16(3), 263-269.
- Erceg Hurn, D. M., & Steed, L. G. (2011). Does exposure to cigarette health warnings elicit psychological reactance in smoke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1), 219-237.
- Evans, A. T., Peters, E., Strasser, A. A., Emery, L. F., Sheerin, K. M., & Romer, D. (2015). Graphic warning labels elicit affective and thoughtful responses from smokers: Results of a randomized clinical trial. *PLoS One*, 10(12), e0142879.
- Fishbein, M., & Ajzen, I. (1974). Attitudes towards objects as predictors of single and multiple behavioral criteria. *Psychological Review*, 81(1), 59-74.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Boston: MA, Addison-Wesley.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9-239.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1003.
- Fong, G. T., Cummings, K. M., Borland, R., Hastings, G., Hyland, A., Giovino, G. A., ... & Thompson, M. E. (2006).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ITC) policy evaluation project. *Tobacco Control*, 15(suppl 3), iii3-iii11.
- Freeman, M. A., Hennessy, E. V., & Marzullo, D. M. (2001). Defensive evaluation of antismoking messages among college-age smokers: The role of possible selves. *Health*

- Psychology*, 20(6), 424-433.
- Glock, S., & Kneer, J. (2009). Game over? The impact of knowledge about violent digital games on the activation of aggression-related concepts. *Journal of Media Psychology*, 21(4), 151-160.
- Hammond, D., Fong, G. T., McDonald, P. W., Cameron, R., & Brown, K. S. (2003). Impact of the graphic Canadian warning labels on adult smoking behaviour. *Tobacco Control*, 12(4), 391-395.
- Hammond, D., Fong, G. T., McNeill, A., Borland, R., & Cummings, K. M. (2006). Effectiveness of cigarette warning labels in informing smokers about the risks of smoking: Findings from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ITC) Four Country Survey. *Tobacco Control*, 15(suppl 3), iii19-iii25.
- Hammond, D., Fong, G. T., Borland, R., Cummings, K. M., McNeill, A., & Driezen, P. (2007). Text and graphic warnings on cigarette packages: Findings from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four country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2(3), 202-209.
- Hammond, D., Thrasher, J., Reid, J. L., Driezen, P., Boudreau, C., & Santillán, E. A. (2012). Perceived effectiveness of pictorial health warnings among Mexican youth and adults: A population-level intervention with potential to reduce tobacco-related inequities. *Cancer Causes & Control*, 23(1), 57-67.
- Hardeman, W., Johnston, M., Johnston, D., Bonetti, D., Wareham, N., & Kinmonth, A. L. (200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in behaviour change intervention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y and Health*, 17(2), 123-158.
- Harris, P. R., Mayle, K., Mabbott, L., & Napper, L. (2007). Self-affirmation reduces smokers' defensiveness to graphic on-pack cigarette warning labels. *Health Psychology*, 26(4), 437-446.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olbrook, M. B., & Batra, R. (1987). Assessing the role of emotions as mediators of consumer responses to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3), 404-420.
- Kees, J., Burton, S., Andrews, J. C., & Kozup, J. (2010). Understanding how graphic pictorial warnings work on cigarette packaging.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29(2), 265-276.
- LaVoie, N. R., Quick, B. L., Riles, J. M., & Lambert, N. J. (2015). Are graphic cigarette warning labels an effective message strategy? A test of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 and source appraisal. *Communication Research*, 009365021560966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pkus, I., & Shepperd, J. (2009). College smokers' estimates of their probabilities of remaining a smoker in the near futur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4), 547-555.
- McCrae, R. R., & Costa, P. T. (1986). Personality,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in an adult

-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4(2), 385-404.
- Magnan, R. E., & Cameron, L. D. (2015). Do young adults perceive that cigarette graphic warnings provide new knowledge about the harms of smoking?.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9(4), 594-604.
- Monarrez-Espino, J., Liu, B., Greiner, F., Bremberg, S., & Galanti, R. (2014).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 of pictorial warnings on cigarette packages in smoking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4(10), e11-e30.
- Matud, M. P. (2004). Gender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1401-1415.
- Nestler, S., & Egloff, B. (2010). When scary messages backfire: Influence of dispositional cognitive avoidance on the effectiveness of threat communica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1), 137-141.
- Netemeyer, R. G., Burton, S., Andrews, J. C., & Kees, J. (2016). Graphic health warnings on cigarette packages: The role of emotions in affecting adolescent smoking consideration and secondhand smoke belief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35(1), 124-143.
- Noar, S. M., & Zimmerman, R. S. (2005). Health behavior theory and cumulative knowledge regarding health behaviors: Are w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20(3), 275-290.
- Noar, S. M., Hall, M. G., Francis, D. B., Ribisl, K. M., Pepper, J. K., & Brewer, N. T. (2016). Pictorial cigarette pack warnings: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Tobacco Control*, 25(3), 341-354.
- Nonnemaker, J., Farrelly, M., Kamyab, K., Busey, A., & Mann, N. (2010). *Experimental Study of Graphic Cigarette Warning Labels*. Rockville, MD: Center for Tobacco Product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Ptacek, J. T., Smith, R. E., & Dodge, K. L. (1994). Gender differences in coping with stress: When stressor and appraisals do not diff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4), 421-430.
- Rogers, R.W. (1983). Cognitive and physiological processes in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A revised theory of protection motivation. In J. Cacioppo & R. Petty (Eds.), *Social Psychophysiology* (pp. 153-17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Rosenfield, S., & Mouzon, D. (2013). Gender and mental health.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pp. 277-296). Springer Netherlands.
- Ruiter, R. A., Verplanken, B., De Cremer, D., & Kok, G. (2004). Danger and fear control in response to fear appeals: The role of need for cogni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6(1), 13-24.
- Sabbane, L. I., Lowrey, T. M., & Chebat, J. C. (2009). The effectiveness of cigarette warning label threats on nonsmoki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3(2), 332-345.
- Schüz, N., & Ferguson, S. G. (2015). Australian smokers' and nonsmokers' exposure to antismoking warnings in day-to-day life: A pilot study. *Nicotine & Tobacco Research*, 17(7), 876-881.

- Skinner, E. A., Edge, K., Altman, J., & Sherwood, H. (2003). Searching for the structure of coping: A review and critique of category systems for classifying ways of coping. *Psychological Bulletin*, 129(2), 216-269.
- Strasser, A. A., Tang, K. Z., Romer, D., Jepson, C., & Cappella, J. N. (2012). Graphic warning labels in cigarette advertisements: Recall and viewing pattern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3(1), 41-47.
- Süsslenbach, P., Niemeier, S., & Glock, S. (2013). Effects of and attention to graphic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ages. *Psychology & Health*, 28(10), 1192-1206.
- Tamres, L. K., Janicki, D., & Helgeson, V. S. (2002). Sex differences in co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and an examination of relative cop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1), 2-30.
- Thompson, M. E., Fong, G. T., Hammond, D., Boudreau, C., Driezen, P., Hyland, A., . . . Mackintosh, A. M. (2006). Methods of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ITC) Four-Country Survey. *Tobacco Control*, 15(suppl 3), iii12-iii18.
- Vardavas, C. I., Connolly, G., Karamanolis, K., & Kafatos, A. (2009). Adolescents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European graphic tobacco warning label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2), 212-217.
- Varescon, I., Leignel, S., Poulain, X., & Gerard, C. (2011). Coping strategies and perceived stress in pregnant smokers seeking help for cessation. *Journal of Smoking Cessation*, 6(02), 126-132.
- van't Riet, J., & Ruiter, R. A. C. (2013). Defensive reactions to health-promoting information: An overview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Health Psychology Review*, 7(S1), S104-S136.
- Washburn-Ormachea, J. M., Hillman, S. B., & Sawilowsky, S. S. (2004). Gender and gender-role orientation differences on adolescents' coping with peer stress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1), 31-40.
- White, V., Webster, B., & Wakefield, M. (2008). Do graphic health warning labels have an impact on adolescents' smoking related beliefs and behaviours?. *Addiction*, 103(9), 1562-1571.
- Willemsen, M. C. (2005). The new EU cigarette health warnings benefit smokers who want to quit the habit: Results from the Dutch Continuous Survey of Smoking Habits.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5(4), 389-392.
-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fear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s Monographs*, 59(4), 329-349.
- Witte, K., & Morrison, K. (2000). Examining the influence of trait anxiety/repression-sensitization on individuals' reactions to fear appeal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4(1), 1-27.
- Zwicker, A., & DeLongis, A. (2010). Gender, stress, and coping. In *Handbook of Gender Research in Psychology* (pp. 495-515). Springer New York.

원고접수일 : 2016. 07.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8. 25.  
게재결정일 : 2016. 08. 31.

## **The Effects of Graphic Pictorial Health Warnings on Tobacco Packaging on Attitudes toward Stopping Smoking and Intention to Stop Smoking: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yles**

**Seungwoo Chun**

**Joon Woo Park**

Dongguk Business School, Dongguk University -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coping styles moderates the effects of graphic pictorial health warnings on packaging on smokers' attitudes toward stopping smoking and intention to quit smoking.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372 smokers including 194 men and 178 women using two different warning labels: a strong graphic pictorial health warning and a text-only warning. This study found that the three-way interaction among gender, coping styles and warning labels had significant effect on smokers' attitudes toward quitting smoking. For men with high (vs. low) problem-focused coping style, the graphic warning (vs. text warning) had greater effect on their attitudes toward quitting smoking. However, the difference in the problem-focused coping style did not moderate the effect of warning label on the attitudes. On the other hand, the graphic warning was more effective for the attitudes for women with high (vs. low)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style, but made no difference in the effect between men with high and low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style.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attitude mediated the three-way interaction and intention to quit smoking. Based upon the result, this study provid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Key words* : *Graphic warning on tobacco packaging, gender, coping style, attitude toward quitting smoking, intention to quit smoking*

## 부 록

### 1. 스트레스 대처유형 측정 도구

| 개념           | 세부 개념     | 항목   |
|--------------|-----------|--|
| 문제중심<br>대처   | 능동적 대처    | 나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노력을 집중한다<br>나는 상황이 나아지도록 행동을 취한다         |
|              | 계획세우기     |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곰곰이 생각한다<br>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 노력한다             |
| 사회적<br>지원 대처 | 도구적 지원 대처 |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아 들인다<br>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 다른 사람은 조언이나 도움을 구한다 |
|              | 정서적 지원 대처 | 나는 다른 사람의 위안이나 이해를 받아들인다<br>나는 다른 사람의 정서적 도움을 받아들인다            |